



제 9 차 APCO/FP 서울회의

金正禮 보사부장관 致辭

[要旨]

통합보건사업, 조기정착토록

오늘 제 9 차 아시아 기생충관리 및 가족계획 통합사업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충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1981년말 현재 약 45억으로 집계된 세계인구가 금세기 말에는 61억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또한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억 인구중 그 10분의 1인 4억 내지 5억이 아사상태에 있거나 극심한 영양실조에 빠져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수준이 낮고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식량과 에너지등의 자원난을 가중시키고 주택, 교육시설등 공공시설 부족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발전의 둔화와 사회개발의 지연을 초래하여 국민보건수준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구문제와 보건이라는 인류의 공통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함께 꾀 나가야하는 개발도상국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안전수준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야말로 온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1981년 12월 인구증가억제대책을 발표하고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거국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기생충구충사업, 영양개선사업 및 환경위생사업 등을 가족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통합보건사업에 관한 제9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그간에 괄목할만한 성과에 따라 각종 국제기구 및 여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본사업을 연구발전시키고 있으며 지역사회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족계획실천과 보건수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도 통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사업책임자와 기생충학자 및 동사업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수행해온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기회에 충분한 토의와 현지시찰을 통하여 훌륭한 결실을 맺어 아시아 지역내의 통합보건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각국대표 여러분!

마침 우리나라도 지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나라에 오신 기회에 한국의 참모습을 두루 살펴보고 앞으로 보건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폭 넓은 이해와 협조가 증진되기를 바라며 체류하시는 몇일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기억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즐거운 추억들을 간직하시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 10월 18일
보건사회부장관 김 정 례